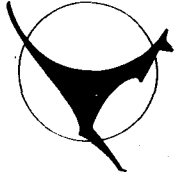


第22次 世界獸醫學會議 參席報告 (2)

XXII WORLD VETERINARY CONGRESS

- PERTH, WESTERN AUSTRALIA -

(21~27 AUGUST 1983)



申 光 淳

(本會副會長, WVA派遣 代表團長)

대한수의사회가 세계수의사회에 1983년 1월 1일자로 가입한후 처음열린 제22차 세계 수의사회총회 및 학술발표 행사에 9명에 대표단을 파견한바 회원들에게 수의분야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간추린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註

- 목 차 -

1. WVA의 발자취
2. 金浦에서 Parth까지
3. WVA總會 및 學術會議
4. WVA理事會 및 閉會式
5. 獸醫科大學 見學 및 南西部觀光
6. 東南部 Australia訪問
7. 맺는말

4. WVA 理事会 및 閉會式

8월 22일(월) 하오 2시에서 5시까지의 첫번째 이사회(제31차)와 8월 26일(금) 같은 시간에 열린 두번째 이사회(제32차)에 필자는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므로 회의내용을 여기에 소개코저 한다.

먼저 8월 22일의 이사회는 회장인 프랑스의 Robert Guillaume 교수의 개회인사로 시작되었다. 회장은 한가운데 참석하고 그 양편에 사무·재무국장인 스페인의 Carlos De Cuenca 교수와 총무처장인 Erhard Aalbers씨가 배석하

였고 그 양옆으로 부회장인 J. F. Figueroa 박사(페루), B. F. Smith여사(뉴질랜드), V. L. Tharp 박사(미국), D. A. Tretyakov박사(소련), S. Tsubaki회장(일본)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사회 참석대표는 각 나라에서 1명이상 투표권 행사 표수의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바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날의 이사회에서는 주로 지난번 이사회(제30차)의 회의록 낭독과 접수가 있었으며, 그 간의 경과보고, 이사회 의제의 접수, 승인 등 상례적인 절차에 의하여 흔히 보통회의의 진행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주로 부의된 안건을 보면 총무국 소관으로 1982년도 업무보고와 수입·지출 결산보고(22,540 Swiss Francs)와 1983년도 예산안(180,300 SF) 승인이 있었고, 다음에는 WVA기금 관리에 관한 안건으로서 1982년도 WVA회비 총수입이 27.06 Z SF(US \$ 63,567)로서 회비 미납국도 10여 개국이나 되었다. 그리고 1983년도 회비를 납부한 국가는 5월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35개국이었다. 또한 연 회비를 3년간 미납한 회원 국가의 자격정지의 건, 연회비 결정의 새로운 제도에 관한 논의를 한 바, 각각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음에는 감사보고와 지적사항이 있었고, 기금위원회 위원선정이 있었다.

이어 WVA 사무재무국장으로 Cuenca 교수의 임명을 추인(전임자인 스위스의 Max Leuenber

ger 박사가 11년간 근무하다가 82년말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서리직으로 일해 왔음)하였으며, 1979년 Moscow 에서 열린 제21차 WVA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제23차대회 개최희망국 (캐나다와 큐바) 대표의 개최희망 의견을 들었으며, 수의사의 선언 (Declaration of Principles of the Veterinary Professions) 안에 대한 검토, 새로히 가입 신청한 회원국의 승인 (Papua New Guinea, India, Congo) 이 있었다.

다음에는 정관과 제규정 개정안이 상정된 바 그 주요내용은 WVA 임원진(집행부) 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재무국장을 선거하고 그 임기는 다음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4년간)로 하고 사무·재무국장은 총회의 동의를 있어야 하며 국가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임원의 입후보는 늦어도 선거 2개월 전에 이사회원국에 그 명단을 제시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총회에 과견되는 국가대표의 회원등록비나 상업전시회 참가비의 비율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비율은 이사회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3국 제안으로 대회 방문자는 참가 수의사보다 최하 100%의 등록비를 더 지불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8월 26일(금) 개최되는 제32차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차기(1983-1987) WVA집행부 선거방법과 차기(1987) 대회 개최장소 선정, 기타 토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첫번째 이사회는 3시간 만에 끝났다.

8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제 2차 이사회가 1차 때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역시 진행방법이나 절차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다만 다른것은 참여인원이 1차 때보다 많이 늘어난 것과 분위기가 훨씬 진지한 점이었다. 그 이유는 이번 이사회에서 관심거리인 회장단 선거와 차기대회 개최국 선정 등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국제적인 추세를 접할 수 있는 결과가 되

기 때문이었다. 본인도 처음 참석하는 이사회이며, 더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입장하였고 앉다 보니 같은 동양권인 일본과 자유중국의 대표들과 맨 앞좌석에 자리를 나란히 하고 회의진행을 지켜보게 되었다. 먼저 회장선거에 들어가 3명의 입후보자에 대한 간단한 사전소개를 위하여 그들의 경력을 적은 내용의 소개지가 배부되었고 오버헤드 프로젝타로 입후보자의 성명을 비춰 주면서 이중 한사람을 선정 투표하라는 것이었다.

사무직원이 알파벳 순으로 나라 이름을 호명하면 투표용지가 들은 소봉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서 회장 후보 성명을 기입하여 투표함에 넣는 식이었다. 제일 먼저 Argentina부터 호명되어 Korea가 나올 때는 자못 상기된 기분마저 들었다. 더욱이 이사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표수가 3표로서(참고: 일본 5표, 대만 2표, 싱가포르 1표 등 WVA에 신고된 수의사수와 이에 따른 회원납부 액수에 따라 WVA 정관에 의하여 투표수가 정해짐, 그러나 제일 많은 나라라 하더라도 5표는 넘지 못하며, 5표의 투표권 행사 국가는 미국, 소련, 일본 뿐이고 4표 투표 국가는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등 임) 비교적 투표권수가 많은 국가에 속하는 우리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도 생겨 주어진 권한을 유감없이 행사하였다.

국가대표로서의 투표권 이외에도 관련단체 회원(예: World Association of Veterinary Anatomists, W. A. V. A.) 등 총 14개 협력단체도 각 1표씩의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명단참조)

순서에 따라 투표가 끝나고 검표위원을 선정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하나하나에 기명된 후보를 집계하는 절차가 있었고 합산하여 투표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장인 이사회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이 되었다.

역시 선거란 긴장감을 주는 것으로서 입후보자들은 무척 초조해 하는 눈치였으며, 어떤 후보는 냉수를 얻거퍼 마시는 장면도 보였고, 옆자리의 대표들이 농담을 하는 정경은 여유도 있어 보였고 웃음도 나는 광경이었다.

세계수의사회 회장이라 하면 역시 수의사로서 한번 해 볼만한 영광이며, 수의사의 세계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하니 그럴법한 일이었다.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다. 최고득점표를 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의 표수를 얻은 남미 Peru 출신의 Juan F. Figueroa(현 부회장) 박사가 78표로 회장에 당선되었음이 공표되었으며, 박수로서 당선을 축하하였다.

다른 두사람의 후보는 Sweden의 Ingmar Mansson 교수(36표), 미국의 Vernon L. Tharp Ohio 주립대학 교수(현 부회장 25표)이었으며, 이들은 그 후 부회장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아마도 회장에 낙선되면 부회장은 쉽게 될 것이라는 전략으로 한번 출마해 본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

계속해서 실시된 부회장 선거도 회장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 바, 다만 다른것은 세계를 6개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입후보를 시켜 한 지역에서 1명씩 6명의 부회장을 선거하기로 1차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지역입후보를 시키고 피선거권자는 그 중에서 골라 투표지에 그 이름을 기입하면 되는 것으로서 꼭 6개지역에서 1명씩 골라 투표하지 않더라도 되는 것이었다.

먼저 입후보 사항을 보면 서구라파에서 2명(France와 Sweden), 동구라파 1명(USSR), 북아메리카 1명(USA), 라틴아메리카 2명(Uruguay, Argentina), 아프리카 3명(Kenya, South Africa, Nigeria), 동아시아 및 대양주 2명(New Zealand, Japan) 등 총 11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지역별로 뽑은 부회장이라 지역적인 국력이

작용하는 감이 들었다. 필자는 심사숙고 끝에 서구라파, 북미, 아시아 및 대양주에서 출마한 입후보자에서만 선택키로 하고 옆에 앉아있는 자유중국, 일본대표들과도 의논하여 행동 통일키로 약속하고 세명의 이름을 기입 투표함에 넣었다.

잠시 후 투표결과 발표가 있었던 바 서구 지역에서는 Sweden의 Mansson 교수(69표), 동구 지역은 소련의 Dr. A. D. Tretyakov 69표(현 부회장으로 재선), 북미지역은 Tharp교수(89표 재선), 남미지역은 Dr. Louis Queirolo (54표, Uruguay), 아프리카 지역은 Dr. W. N. Masiga (47표, Kenya), 동아시아 및 대양주지역은 Miss B. F. Smith(53표, New Zealand, 현부회장으로 재선)로 결정되었음이 발표되고 만장의 축하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아쉬웠던 일은 동양권에서 출마한 樺(Tsubaki) 일본수의사 회장(현 부회장)이 겨우 34표 밖에 못얻어 낙선한 것이었다. 즉 전임 부회장 5명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격이 되었으며, 지역별(전회까지는 총다수 투표로 결정)로 하다 보니 뉴질랜드 후보와 경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서양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표수를 얻기란 심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여겨졌다. 오히려 30여표라도 얻은 것이 다행이라고 본인 자신도 말할정도였다. 그 이유는 동양권의 표수를 전부 합쳐야 11표(싱가폴 포함) 밖에 안되니 총 150여표의 10%도 안되는 숫자이니 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며 역시 수의학이 먼저 발전되고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구라파 나라들이나 미주쪽의 지지를 얻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의사들의 유엔총회이며, 이사회인 WVA의 성격으로 볼때 전문분야의 회의이지만 역시 국가적인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역사적 문화적 흐름 등등 외교적 측면은 무시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있음을 느낄수 있

는 기회이었다.

이사회 마지막 순서로 차기(1987년도) WVA 총회 개최국 선정에 들어간 바, 유치 후보국가로서 Canada와 Cuba가 출마하여 각기 대회개최 가능성과 대회장소 등 시설물 상태 등 자국의 소개가 간단히 있었으며, 특히 큐바대표는 슬라이드까지 준비해 비춰주면서 설명하는 열성도 보였다. (제스츄어인지 모르지만), 결과는 뻔하여 Canada가 82표, Cuba가 28표로 절대다수로 캐나다의 Monteriol시(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었다. 먼 훗날 한국의 서울에서도 WVA 대회를 한번 가질 날이 후배 수의학도들에 의하여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도 희망을 갖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란 생각도 문득 들었다.

이상으로 이사회를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하오 6시부터 2시간여에 걸친 폐회식에는 이번 대회 참석대표 전원이 개회식장이었던 제 1홀에 좌정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진행은 이번 대회장인 D. C. Blood 교수(호주 멜본대)의 재치있는 사회로 시작되었다.

먼저 이번대회 의결기관인 Resolutions Committee 의장인 M. E. Nairn 교수의 결정사항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WVA 신임회장 및 새로운 집행부 임원의 결정내용, 그리고 1987년도 WVA대회 장소의 안내 등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현 WVA 회장인 R. Vuillaume 교수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다음 순서로 WVA 창시자의 이름을 딴 GAMG EE상 시상을 이번대회에 노고가 많은 D. C. Blood 대회장에게 수여하였으며, 이어 새로 선출된 신임회장의 제안형식(이사회에서 결정된 바 있음)으로 전임회장을 WVA 명예 회원으로 추대하여 만장의 박수로 받아 들었다. (명단참조)

명예회원명단 (Honorary Members)

성 명	피선년도	국적
Prof. Dr. Jac. Jansen	1971	Netherland

Prof. Dr. W.I.B. Beveridge	1975	Cambeia, Australia
Prof. Sir Alexander Robertson	1975	Scotland, U.K.
Dr. J.M. Steele	1975	Texas, USA.
Dr. R. Vittoz	1975	Paris, France
Prof. Y. Ochi	1979	Azabu Uni. Japan
Prof. Dr. M.W. Westermarck	1979	Helsinki, Finland
Prof. Dr. R. Vuillaume	1983	Paris, France

자문기관 명단

(Organizations having Observer Status)

1. Office of International Epizootics (O.I.E.), Paris, France.
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Rome, Italy.
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eneva, Switzerland.
4.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INC. (W.M.A.), Ferneyvoltaire, France.
5. International Womens Auxilliary to the Veterinary Profession (I.W.A.), Lourain, Belgium
6. International Veterinary Students Association (IVSA), Uppsala, Sweden
7. Panamerican Association of Veterinary Medicine and Zootechnicts, Maryland, USA.
8. Counci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CIOMS), Genera.
9. European Association for Animal Production (E.A.A.P.) Rome, Italy.
10.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W.S.P.A.) Zurich, Switzerland.
11. Intrnational Union for Conser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and World Wildlife Fund (W.W.F.), Gland, Switzerland.
12. International Council for Laboratory Animal Science (I.C.L.A.S.), Oxford, U.K.

준회원 단체명단 (Associate Members)

1. World Association of Veterinary Anatomists (W.A.V.A.).

2. World Association of Veterinary Physiologists, Pharmacologists and Biochemists (W.A.V.P.P.B.).

3. World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Veterinary Parasitology (W.A.A.V.P.).

4. World Association of Veterinary Food Hygienists (W.A.V.F.H.).

5. International Veterinary Association for Animal Production (I.V.A.A.P.).

6. World Association of Veterinary Pathologists (W.A.V.P.).

7. World Association of Veterinary Microbiologists, Immunologists and Specialists in Infectious Diseases (W.A.V.M.I.).

8. 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 (W.S.A.V.A.).

9. World Association for Buiatrics (W.A.B.).

10. 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I.P.V.S.).

11. World Veterinary Poultry Association (W.V.P.A.).

12. World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Veterinary Medicine (W.A.H.V.M.).

1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

14. World Veterinary Epidemiology Society (W.V.E.S.).

협조단체회원 명단 (Affiliate Members)

1. INSTITUT MERIEUX (17, Rue Bourgelat, 69002- Lyon, France).

2. INTERVET INTERNATIONAL B.V. (Wim de Korverstraat 35, P.O. Box 31, 5830 AA BOX MEER, The Nether lands).

3. MSD AGVET (P.O. Box 2000, RAMWAY, N.J. 07065, USA).

4. DISTRIVET (Groupe Roussel-UCLAF), (163, avenue Gambetta, 75020 PARIS. France).

5. LABORATORIOS SOBRIND S.A. (OLOT, Provincia de Gerona, Spain).

다음 순서로 제23차 세계수의사회대회 개최국인 캐나다 대표의 초대인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폐회사를 함으로써 폐회식은 일단 끝났다.

계속하여 주최측이 마련한 송별공연으로 들어 갔다.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하면, 첫번째 프롤로 군악대가 연주하는 오스트라리아 찬가 3곡이 웅장하게 퍼져나왔고 이어 무용학교 학생들의 호주 고유스포츠 경기인 축구경기 (미식 축구와 유사하나 유니폼 등 전혀 색다른 경기)를 상징하는 Football Fever란 제목의 무용공연이 있었으며, 이어 호주 고유민요의 합창 (4곡)이 있었고, Wonderful Wool이라 하여 양피, 양모를 비롯한 각종 피역제품의 의상모델 경연 등 자기 나라 고유성을 선보이는 각종 즐겁고 흥을 돋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려 9가지가 공연되었고, 마지막으로 군악대,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이 일당이 되어 연주되는 Australian Farewell (호주여 안녕) 행사로 I love a Sunburint country, Waltjing Matilda, I still call Australia home 등 자기나라를 찬양하고 마음을 끌게하는 장엄하고 심금을 울리는 음악의 대행진은 모든 청중들에게 인상 깊게 하였으며, 여운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5. 수의과대학 견학과 남·서부 관광

8월 24일(수) 미리 견학신청한 계획에 따라 호주에서 4 번째로 생긴 Murdoch 대학교의 수의과대학 (School of Veterinary Studies) 을 견학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오전 9시 미리 준비된 2대의 버스에 분승하니, 각나라 대표들이 다수 참가하였으며, 특히 대표들 중에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다.

대회장 앞에서 출발한 버스는 약 30분 정도 Perth시 남쪽 (South Perth)을 벗어나 Kwlana Free Way를 따라 달리다가 Canning River 를

넘어 얼마 안가서 우리 일행이 견학가는 Murdoch 수의과 대학에 도달했다.

견학단 일행은 부속동물병원의 중간을 통과하는 중간통로(통로라 하기 보다 한 쪽은 환축의 진단 및 치료실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입원실 및 계류사가 있는 구조로 가축운반 차량이 몇대씩 동시에 출입할 수 있는 지붕이 덮인 대도로란 표현이 적당함)에 전부를 모아 놓고 대학 당국에서 나와 환영의 인사와 간단한 학교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마침 점심때라 Table 위에 마련한 음식과 음료 그리고 종이접시를 하나씩 들고 스테이크 굽는 냄새와 연기가 나는 쪽으로 줄을 서지 않는다. 필자와 윤지병 사장도 줄에 끼어드니 머금직한 고기 덩어리 그리고 소세지 뭉치 원하는 대로 잡수시라는 것이다. 역시 육식식성이 형편없는 우리들은 겨우 작은 조각 하나 골라 빵 한쪽하고 갖다 먹으니 배는 차서 더는 먹을 수가 없었으며, 그들은 대조적으로 계속 갖다 먹는 다식가들이어서 그만큼 일도 많이 하지 않나 여겨졌다. 그럭저럭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끝나니 금강산도 식후경의 차례가 왔나 보다. 번호를 쥘 쪽지를 이름표에 하나씩 붙여 주기에 무엇인가 하였더니 그 번호가 바로 견학동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나! 약 10명 정도를 한 구름으로 묶어 그 곳 대학의 여학생과 남학생 1명씩이 안내원으로 자칭, 가이드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잠깐 본 대학을 먼저 소개하면 Murdoch 대학교는 1973년에 호주에서는 Brisbane, Sydney 그리고 Melbourne 대학에 이어 4 번째의 수의과 대학으로 새로이 설립된 역사가 10년 밖에 안되는 대학으로 1975년에 처음 수의과대학 학생이 입학하였다 한다.

학생수는 대학교 전체가 약 3,200명의 학생으로 한 캠퍼스에 있으며, 그 중 수의과대학은 약 250명의 학생밖에 안된다.

입학 정원이 48명으로 매년 300여명의 지원자가 있으며, 이 입학정원에는 South Australia

주에서 12명, Tasmania (멜본 아랫쪽의 섬)와 Northern Territory 주(호주 중간의 북쪽주)에서 각각 4명, 그리고 수의학교육이 충분치 못한 외국의 학생 4명을 입학정원에 포함시켜 모집하는 제도로서 결국 이 대학이 소재하는 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정원의 반수인 24명밖에 모집할 수 없는 제도로 지역적 안배를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였다.

대학 과정은 5년간으로서 이 과정을 전부 이수하면 두 가지의 학위인 Bachelor of Science (B. Sc.)와 Bachelor of Veterinary Medicine and Surgery (B. V. M. S)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B. Sc 학위는 처음 3년간의 Veterinary Biology Programme 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고, 만일 임상수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이 때에 B. V. M. S 과정을 들어가지 않고 떠나더라도 무방하며 이 경우에는 대개 관련 연구기관이나 동물관계 회사, 또는 연구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는 Master of Philosophy (석사)와 Doctor of Philosophy (박사) 의 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본 수의과대학이 차지하는 전체면적은 40헥타(약 12만평)로서 그 중 20헥타가 부속 목장으로 말, 양, 소가 들어 있으며, 앞으로는 돼지와 닭도 사육할 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이 대학을 건립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약 850만불(약 68억원) 기타 시설 투자비가 150만불(약 12억원)이 들었다 한다.

또한 교수진은 전부 합쳐 40명이며, 학부 학생은 현재 237명, 대학원생은 44명이다. 그리고 3명의 인턴과 1명의 레지던트, 53명의 기술요원, 14명의 행정요원을 갖고 있었다.

다음은 이 대학의 활동기능을 간단히 간추려 소개하면,

1) 수의과 병원: 주 5일간 24시간 가동하며 4명의 전속 수의사와 2명의 인턴에 의하여 소동물 병원이 운영되어 연간 약 3,900case를 다루

고 있으며, 2인의 수의사와 레지덴트에 의하여 연간 약 1,000마리의 말이 치료되며, 목장의 가축 보건계획에 의하여 연간 약 1,500마리의 가축을 치료 또는 관리하고 있었다.

2) **소동물 치료실**; 이 곳은 소동물병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진찰실과 입원실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간단한 치료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마취, 치과, 귀와 눈의 검사, 간단한 외과처치, 혈액채취, 정맥주사 등을 할 수 있다.

3) **소동물 병동**; 두개의 큰 개 병실과 1개의 고양이 병실이 있어 53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수용할 수 있는 스텐레스 개집이 마련되어 있다.

4) **방사선실**; 대·소동물용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전부 자동계에 의하여 기록되며, 필요시에는 비데오 테이프를 재영사하면서 관독할 수 있게 되며, 전부 교육용 file을 만들어 활용한다.

5) **말 고정실**; 검사나 치료시 안정시키고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곳이다. (15마리 동시수용 가능)

6) **대동물 진찰실**; endoscopy(내시경)나 심전도등 조용하고 깨끗한 상태가 필요한 검사시 이용되는 곳이다.

7) **대동물 수술실**; 수술을 위한 고정장치, 마취시설 등은 물론 회복실도 마련되어 있다.

8) **소 계류사**; 42마리의 소, 산양, 면양을 각각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이 되어 있으며, 검사중이나 치료중의 동물을 위하여 사용된다.

9) **번식 실험실**; 산과기술에 대한 지도, 인공수정기술 등 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곳으로 임신진단 등도 물론 한다.

10) **시범 강의실**; 대가축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알아서 볼 수 있도록 비데오, 환경시설이 완비된 곳이다.

11) **식육검사실**; 식육위생, 도축검사 등 도축장의 처리과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12) **독초식물원**; 각종 독초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면서 그들의 생활환등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살아있는 연구실이다.

13) **컴퓨터 연구실**; 대학본부 중앙컴퓨터와 Western Australia 대학교에 있는 서부호주 지역 컴퓨터센터와 직접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터미널을 갖춘 두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 연구, 교육, 통계분석, 의무기록의 보관과 재생 등에 활용되고 있다.

14) **부검실**; 진단병리학 실습을 위한 부검실은 크고 작은 두 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동적으로 냉장실에 가검물을 넣고 꺼낼 수 있게 장치되어 있다.

15) **임상병리검사실**; 혈액학적, 생화학적, 미생물학적, 세포학적, 비뇨기학적 검사를 위한 임상진단실로서 부속병원은 물론 지역수의과 병원, 지역관계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검사의뢰에 임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00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16) **임상병리 지도실**; 4년차, 5년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임상검사의 기술을 습득시키게 지도하는 곳이다.

17) **해부 실험실**; 1~2년차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로서 표본실과 냉장, 냉동실이 겸비되어 있으며, 부분적인 미세구조 등은 칼라TV로 확대 영상시키는 시설도 있으며, 살아있는 동물을 표층해부학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18) **해부학 박물관**; 본 대학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모든 표본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모형물은 물론 사진, 영상, X-선 필름 등 거의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19) **병리학 박물관**; 역시 병리조직 표본은 물론 사진, 영상 등 실제로 나타난 표본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20) **전자현미경실**; 50만배율의 현미경으로 현상을 위한 암실, 스캐닝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다.

21) **실험동물 센터**; 대학 본관과 가까운 곳에 실험동물 사육사가 완전한 시설로 SPF 동물을

키워 공급하고 실험연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며, 실제로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견학할 수는 없었다.

다음은 본 대학에서 이수하고 있는 교과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5년과정 중 1년차에는 생명 과학을 위한 화학, 생물학, 수학(통계방법), 수의과학 등을 포함시켜 고등동물의 기능적 형태학, 동물과 사회에 대한 사고, 대학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 있으며, 2년차에는 해부학, 의화학, 발생학, 조직학, 생리학, 동물 생태학 등 정상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교육, 3년차에는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약리학, 영양학, 유전학, 가축육종학, 임상학의 개념 등 동물에 질병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원인과 그 변화에 대한 교육, 제 4년차에는 가축 질병에 대한 이해와 진단, 예방, 치료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계통병리학, 약리학 및 치료학, 동성학, 외과학, 마취학, 방사선학, 역학, 수의공중보건학, 축산물 생산 등의 과목이 교육된다. 끝으로 5년차에는 가축의 번식과 생산에 있어 개체 또는 집단적으로 올 수 있는 가축 종별에 따른 연구, 그리고 그들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다 정밀한 시험, 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즉 축산경제학, 동물복지학, 수의공중보건학, 병원관리학, 등 수의학의 마무리를 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이상의 교과과정 이외에도 특수 선택과목이 20개 이상 개설되어 있어 적어도 연간 4개 과목을 수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기회에 시간을 내어 남서부 호주의 교외풍경을 둘러보기 위하여 두번에 걸쳐 관광을 한 바, 그 소감을 간단히 기술한다.

먼저 South Coast and Darling Rangas 코스로서 이름 그대로 남 서해안을 따라 왕복 8시간이 걸리는 1일 관광으로 배스에 몸을 싣고 허허 벌판을 끝없이 달려가면서 차창으로 보이는 호주대륙의 극히 일부의 풍경을 즐겼다.

거의 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초원과 들판, 목장지대, 산림지대가 계속되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자연이 적당히 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원과 모래로 덮인 들판만 어느 정도 계속되다가 농가와 초지(축산단지)가 이어져 한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다시 이 지역을 지나면 각종 이름 모를 나무들이 즐비하게 숲을 이룬 산림지대가 죽 계속되는 등 한코스를 달리지만 보는 경치는 여러 다른지역을 동시에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소도시나 부락의 깨끗하고 그림같은 주거 풍경. 그러나 주택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살만한 크기, 외부는 벽돌이나 보록이 주이고 산뜻한 색칠을 한 아담한 집들, 그러나 내부 구조는 편리하고 아늑하게 착실히 가꾼 주택, 담은 물론 없고 사방은 항상 푸른잔디가 자라는 초원, 내 땅 네 땅의 구분도 안되는 공동 녹지(전부가 골프 연습장), 이층집도 별로 없고 아파트도 거의 없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가에 연하여만 집이 있고 뒷쪽은 또 잔디밭, 가히 어느 곳이나 전원풍경을 느낄 수 있는 지상의 천국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었다.

멀리 내다 보이는 목장들 양떼들이 풀을 뜯고 소 떼들이 여기 저기서 한가히 거닐며, 간혹 말들도 뛰어 다니는 초원의 목장풍경, 경계도 없고 누구집 가축인지도 구분 안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목장은 한가한 감마저 드는 풍경이었다. 군데 군데 지하수를 끌어 올려 급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스프링쿨러로서 초지에 물이 공급되어 연중 목초가 자라고, 저장의 필요도 없어 싸이레지 시설도 안보이고 축사시설도 별로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목장이었다.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면 될 뿐 인공이 별로 없는 광경이었다.

Jarrahn 나무(야자나무과) 숲이 우거진 이름도 귀여운 Darling Ranges의 숲속으로 들어가니 신기한 꽃과 풀들, 하늘을 지 솟는 아름다리 나무들 가히 숲의장관을 연상케 하나 습지는 없

는 아열대의 고유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 숲속을 흐르는 강물과 까만색의 돌들, 그리고 황갈색의 모래흙 까닭인지 낙엽이 썩어 그런지 역시 황갈색의 물이 세차게 계곡을 흐르고 있다. 근처에서 온듯한 젊은이들이 그 물가 숲속에서 캠핑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흐르는 물 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즐거움, 낚시도 던져 민물고기도 낚는가 보다.

여기에 우리일행도 전부 하차하여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요기하니 그 동안에 쌓인 피로가 말끔히 사라져 버리는 기분이었다.

특히 인상적인 일은 관광버스 운전사의 풍경 소개 장면으로 마치 산림학의 기초강의라도 하듯 자세하고 위트있는 창밖 설명은 차안의 모든 손님을 자기말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왼쪽의 나무는 무슨 나무로서 하면 전원이 좌향좌, 바른 쪽의 풍경은 하면 다같이 우향우 고개도 잘 돌리며 경청들을 하는 모습은 마치 국민교생들 같다. 내 옆에 앉은 영국에서 온 개업수의사 Smith씨 부인은 메모지를 꺼내 들고 열심히 적는다. 그래 그 내용을 다 아느냐 물었더니 나무 이름의 스펠링은 틀릴지 모르나 적어 두었다가 식물도감을 찾아 보겠다는 열성이었으니 감히 짐작이 갈만하다.

또 다른 한 곳의 관광은 Swan Drive and Fremantle 코스이었다. 이름 그대로 갈매기 친국인 Swan River와 호수를 끼고 한바퀴 돌아오는 한나절 코스였다. Fremantle은 Perth에서 서북쪽으로 20여km 거리의 서부 구도시로서 옛날 개척기에 화란이나 폴튜갈 배가 드나들던 곳이기도 하다. 유명한 Captain Cook의 호주 기항도 이 근처이었다 한다. 그래서인지 옛날을 보존한 박물관 견학이 들어 있었다. 바로 선창가에 지어진 죄수 수용소의 유적, 배에서 내려 죄수들을 굴 통로를 통과시켜 이 곳에 수용하는 편지가 있었던 모양이다. 내부는 실물보다 모형도가 많았고 200년 역사이니 무엇 고색창연한 보장품이 있을리 없고 그저 당시의 사실

들을 될수록 살리려고 무척이나 애쓴 흔적이 역력하였다. 바깥 쪽에는 옛날 타고 온 배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진열해 놓고 역사의 뿌리를 남기느라 무척이나 애쓴 박물관이었다.

다음에는 8월 23일 저녁 스케줄인 호주 가정방문 일정과 8월 22일과 24일 저녁의 International Fiesta와 Veterinary Congress Dinner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가정방문은 나와 최 병순 씨가 대회 본부에서 사전에 짜준 가정방문 계획의 일행이 되었기에 Perth 교외에 있는 예정된 호주가정 집을 향하여 호텔을 나왔다. 마침 비가 내리는 저녁이라 비를 맞으며 택시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주소와 번지를 알려주니 지도를 보고 약 20여분 달려 후렛쉬로 번지를 확인 미리 전화해 둔 집에 손쉽게 도착되었다. 그 집 주인은 Malaysia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5개월전에 이곳으로 이민 온 수의사 가정이었다. 미리 초대되어 온 다른 나라의 참석 수의사들이 와 있어 주인 Vincent Lee 씨의 소개로 응접실에서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 날 저녁의 초대 수의사는 우리들과 일본에서 온 三共株式會社 生物研究所의 北野氏 그리고 구라라 Finland에서 온 수의사 부부(어병학 전공) Netherland에서 온 Utrecht 대학의 Maas교수 모두 합쳐 6명이 같이 초대되어 결국 네 나라에서 온 수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주인집에서 마련한 저녁과 백포도주를 들며, Sauna Bath(북구라파에서는 일반화된 목욕 습관)에 얼킨 이야기 등 환담을 하며 즐거운 한 때를 지내며, 친목과 국제적인 교류를 갖었다. 역시 지구는 하나의 가족이며, 인간의 사고는 비슷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참석 수의사 전원이 모이는 24일의 Dinner Party(장소: Cannington Rollway 관 Roller Skating Hall)와 22일의 International Fiesta의 저녁초청에도 참여하여 대형홀에 마련된 음식을 먹으면서 계획된 프로에 따라

진행되는 호주의 민속춤 놀이, 필리핀의 Bamboo Dance, Scotland의 경쾌한 춤, 스위스의 민요 들을 들으며, 밤 12시까지 참석수의사들이 서로 어울려 친교도 갖고 담소도 하고 춤도 추고 사진도 찍는 등 기억에 남겨지는 각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Dinner Party는 full course의 식사가 큰 홀을 가득 메운 약 2,000여명에게 제공되는 메머드 Party이었으며, 금번 대회장과 WVA 회장이 대형 축하 케이크를 잘라 전원에게 한 쪽씩 돌아가게 하는 배려도 있었다.

6. 동부호주(Brisbane과 Sydney) 방문

8월 26일(금) 폐회식까지 참석한 우리 일행은 공식일정을 전부 무사히 마치고 일단 호주에서의 공동행동을 일단락 짓고 미리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 즉 김 재성, 권 병근, 최 병순, 유 성방씨 등 4명은 Sydney를 거쳐 뉴우질랜드까지 가는 일정이었으며, 본인과 윤 지병 사장은 직접 동부호주에 위치한 Brisbane으로, 그리고 심 영조, 김 영찬씨는 Sydney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 예약이 되어 있었다. 일행 중 주 한수 박사는 그날 오전에 먼저 떠났고 이 각모 사장은 23일 밤 제일먼저 떠났다. 거의 비행기 시간이 같기에 저녁 10시경 일주간 묵었던 호텔에서 짐들을 챙겨가지고 공항으로 나가니 국내선은 거의 10분 간격으로 뜨고 있었다. 서로들 남은 호주에서의 여정이 뜻있고 무사히 되기를 바라며 한국에서 재회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각 자기들 비행기에 올랐다. (최 병순씨는 계획 차질로 일행과 별도로 출발)

밤 12시에 출발한 국내선 Ansett 항공사 여객기는 약 4시간 10분만에 Brisbane 공항에 안착하였다. 내려보니 2시간의 시차로 그 곳은 새벽 6시가 넘어 이른 아침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Queensland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시립산업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호주로 이민가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계신 鄭 榮錫 박사(현재 그곳 Queensland주 제 1 차 산업성의 Animal Industry Division에서 과장급으로 재직중임) 가 차를 갖고 나와 반갑게 마중하여 주었다. 오랫동안의 만남이며, 먼 이국 공항에서의 환영이라 더욱 반가웠다. 정박사가 직접 운전하는 Ford 차로 약 30분간 달려 교외 아늑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집으로 안내되었다. 부인 安여사 그리고 중학 3년생의 딸, 국민학교 5년생의 아들들도 한국에서 모처럼 온 아버지의 친구들을 반가히 맞아 주었다. 이층으로 올라가 간단히 여장을 풀고 미리 준비한 아침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 꽃이 계속되었다. 이력저력 시간이 흘러 아침 10시가 지나니 정박사는 모처럼 이곳까지 왔으니, 세계적인 휴양명소인 South Coast 해안의 절경을 보러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래 다시 그의 차로 드라이브하기 1시간여 마침내 유명한 Gold Coast에 다달았으며, 그곳 관광시가지의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배불리 점심을 먹고 시내를 거닐며, 거리의 풍경, 상가의 진열상품을 두루 구경하다가 다시 차를 타고 더 남쪽으로 약 30분 해변가를 따라 달리니 멀리 수평선이 둥글게 보이며, 우뚝 솟아나온 곳에 도달했다. 이 곳이 바로 Queensland주와 New South Wales주의 경계이며, 이를 나타내기 위한 기념탑과 탐중간에 줄을 그어 놓았는데, 이 선이 주경계선 이란다. 그리고 등대도 겸하고 호주에 처음 기착한 쿡선장의 기념탑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Captain Cook Memorial and Light House). 때 마침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라 저녁 노을의 경치는 이국의 정경을 마음껏 느끼게 하였으며, 저 멀리서 파도 타기(Surfing)를 즐기는(펭귄으로 착각하기 쉬운) 젊은이들 한떼들의 광경은 유명한 호주해안가의 풍경이라 하겠다.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다시 차로 Gold Coast로 돌아와 번화가에 있는 오래된 Hotel을 정하여 그 곳에서 세친구는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

였다.

저녁을 들고 밤거리 구경을 나섰다. 그쪽 계절로는 겨울철이라 하는데도 늦은 여름기후 같아서 삼삼오오 거리를 돌아다니는 선남선녀들의 틈에 끼어 우리들도 기웃거리며 변화가를 살살이 돌아 다녀 보았다. 때가 비철인데도 많은 휴양객들이 붐볐으며, 거리의 악사들이 기타를 치고 있으면, 젊은이들이 모여 같이 맛장구를 치며 흥겹게 노래부르고 즉석 춤을 추는 광경은 그곳만의 특징인 것 같이 느껴진다. 같이 즐긴 보답이라 할까 거리의 악단 앞에는 동전이 수없이 쌓여 있으며, 그들은 구걸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있는 건지, 여러 사람을 즐겨주고 자신도 즐기기 위해 나와 있는지 분간이 안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짚시와 같은 생활로 구경도 하고 여행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목적으로 즉흥악단이 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 호주인의 생활 철학은 돈이 어느정도 있고 생활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활을 즐기며, 사느냐가 그들의 걱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휴양지에 많이 몰리고 있다 한다. 그 곳의 대부분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전부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 내내 밀려와 해수욕을 즐기는 가족단위의 피서객들에게 일정기간(1~2주) 빌려주는 제도로 되어 있어 돈이 있는 사람은 소위 콘도미엄식 주택이나 아파트를 전부 갖고 있으며, 남에게 빌려주어 집세도 받아 낼 수 있는 식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 사두면 부동산 투자의 가치도 충분히 있다며, 권하는 것이 아닌가,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는 어 부인이나 데리고 와 세상 있고 편히 쉬면서 여생을 즐기기에 알맞는 곳이라 문득 여겨졌다.

거리를 거닐다가 우체국 앞에 있는 공중전화통을 들러다 보니 국제전화가 직접 가능한 모양이다. 호기심도 생기고 실제 집에 전화도 걸 겸 동전을 준비하여 걸어 보기로 하였다. (Perth에서도 한 경험이 있다.)

먼저 국제전화 호출번호인 0011을 돌리고 다음 82(Korea), 그리고 서울지역번호(02)와 집의 번호를 돌리니 집에서 직접 전화를 받아 통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 서울 도착 예정 일시와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이지만 붉은 신호가 나와 계속 20전 또는 50전짜리 동전을 집어 넣어야 끊기지 않는다. 웬만큼 통화(약 2분)하고 끝내니 그곳 돈으로 3불(2,400원) 정도 들은 것 같다. 꼭 서울과 반대방향인 지구 남반부의 남위 28도 정도의 곳인데, 이렇게 국내에서 직접 다이알을 돌려 전화하는 것과 같으니 신기하기도 하였다.

밤 늦게야 Hotel방에 돌아와 바다 쪽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벗삼아 맥주를 들며, 여러가지 담소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밤이 깊어 갔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내려다 본 바다와 무한히 펼쳐있는 백사장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었으며, 지금도 눈에 선한 기억들이다. 다시 아침바다로 나가 백사장을 거닐며 바다 바람을 쐬니 한결 마음이 상쾌하며 내 몸속의 대기오염 잔류물들이 말끔히 없어진 감마저 들었다. 간단히 아침을 들고 해안가를 따라가니 시간이 이른데도 많은 사람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모래위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호주에서는 겨울에도 해수욕을 한다더니 실감이 느껴졌다.

원래는 안되는 모양인데, 몰랐던 탕으로 남의 경치 구경하고 눈요기도 즐기고 사진도 살짝 찍어 보고 하면서 마음만의 해수욕을 즐기었다. 좀 더 멀리 나가면 나체족들의 해수욕장도 있다던데 갈 시간도 없고 벗고 들어갈 용기도 없고 망원렌즈나 망원경을 준비해 가지도 않아 그저 상상에 맡기고 돌아가기로 하였다.

12시 조금 지나 다시 차를 몰고 어제 내린 공항으로 직행 2시발 Sydney행 Aussett를 타러 나갔다. 운사장은 그 곳에 더 머물면서 호주에 공부하러 와 있는 아들도 만나고 동기동창 지간인 정박사와 좀 더 여유있게 지내다가 뒤에 오기로 하고 나 혼자만 먼저 떠났다.

약 1시간 반 만에 약 900km를 날아 도착하니 Sydney 공항이었다. 시간의 여유가 없으며, 가는 날이 장날인 일요일이라 시가지는 전부 문을 닫고 변화가에만 문을 연다기에 유명한 거리인 King's Cross로 직행 조그마한 여관인 Spring Field Lodge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였다.

여관이 오래됐고 낡은 건물이라 좀 충충한 감이 들고 혼자가 되니 쓸쓸한 감이 들었다. 이미 저녁 5시라 도저히 시내 일주 관광버스는 있을 리도 없다. 그러나 그 여관 접수에 있는 나이먹은 여사무원에게 물었더니 관광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여 주는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여하튼 어디를 가나 어떤 사람이거나 호주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친절성과 순진성을 빼면 남을 것이 없을 정도로 친절하면서도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친구들이었다.

할 수 없이 여관을 나와 거리를 거닐어 보니 한국인이 경영하는 모피점이 눈에 띄지 않는가. 들어가 인사하고 한국음식점 좀 안내해 달라 부탁하니 그도 호주사람 닮았는지 전화로 확인한 후 가보라고 자세히 안내해 준다. 바로 근처이기에 찾아가니 근래 온 사람들로 조그마한 로스쿠이집이었다. 메뉴에 육개장이 있기에 그 걸 시키니 얼큰하여 모처럼의 한국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역시 그 집에 저녁 먹으러 온 두 젊은 한국교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 생활을 물으니 교포의 대부분이 Sydney에 밀집되어 있는데, 약 10,000명 정도(전국 15,000명 추산) 있을 것이라 한다. 또한 정식 거주권이 없는 한국인도 상당 수 있다. 그리고 한국식당만도 10개정도나 되고, 상당히 많이 진출한 경향이나 아직 크게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모양이다.

그 젊은이들의 편의제공으로 그들의 자가용을 타고 밤거리인 Sydney시가를 드라이브하여 옛날 건축양식으로 지은 시청(구관으로 보존중임) 앞을 지나니 중심가를 통과한 셈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Opera House로 가 특수양

식의 건조물과 내부도 들어가 보고 공연 스케줄도 살펴 보았다. 거의 연중 공연이 있는 모양으로 그 때는 아직 시간이 일러 사람들이 없었다. 유람선도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들어 왔고 그 위의 Harbour Bridge도 쳐다보니 Sydney의 명물을 다 본 셈이다. 내일 아침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 장면이 더 보기 좋다는 일행의 설명이다. 그렇기도 하기에 아쉬움을 갖고 어둡고 선선한 감도 있기에 다시 돌아 들어가자고 하였다.

그들과 같이 아까보다 큰 "한국의 집"에 찾아가 함께 맥주를 마시며, 그들의 생활상을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다. 한 두어시간 담소하고 나니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하여 다시 변화한 거리로 나와 이것 저것 구경하다가 조그마한 지하영화관으로 들어가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여관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다.

다음 날인 8월 29일(월) 오전 11시가 나의 출발 시간이라 부지런히 짐을 챙기고 있노라니 바로 옆방에서 들어 본 일이 있는 한국말이 들려 오기에 반가이 문을 열어 보니 먼저 Perth를 떠났던 경기도의 심 영조, 김 영찬씨 두분과 또 한분은 주박사가 아닌가, 다시 사흘만에 잠깐 만났으나, 나는 바로 공항에 나갈 시간이 된 지라 아쉬운 이별을 하고 그 분들이 짐을 들여다 주면서 택시에 태워 전송하니 손을 흔들도리밖에 없었다. 공항에서 올 때 탄 CPA가 이륙하니 호주도 마지막이구나 생각되어 섭섭하였다. 비행기는 Melbourne 공항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떠서 무려 1시간 만에 목적지 Hong Kong에는 저녁 9시(현지시간)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는 새로 신축한 Miramas Hotel로 들어가 피곤한 몸을 쉬고 다음날 오전 11시 25분 서울을 향하여 떠났다. Taipei 공항에 잠시 기착하였다가 하오 4시30분 김포공항에 닿으니, 출발한지 만 12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 온 것이다. 뜻 있는 여행이었으며, 좋은 경험과 배운 것도 많은 호주 방문이었다.